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5. 1. 9.(목) 11:00 < 1.10.(금) 조간 > 배포 2025. 1. 9.(목)

철강산업 미래, 산학연정이 함께 준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출범

- 미(美) 신정부·공급과잉·그린전환 등 철강산업 현안 대응 박차

미(美) 신정부 출범, 글로벌 공급과잉과 탈탄소 전환 등 철강산업의 대내외 현안 대응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 학계 등이 머리를 맞댄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1.9.(목)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과 민동준 연세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출범식을 개최했다. 산학연의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는 단기적으로 통상 현안에 민관이 협업에 대응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철강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한다. TF는 산하에 ①경쟁력 강화, ②저탄소 철강, ③통상 현안 등 3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분야별로 심화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각 분과는 ①철강산업 발전방안 ②저탄소 철강 이행을 위한 핵심과제, ③철강 통상환경 변화와 과제 총 3건을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글로벌 공급과잉, 보호무역주의 확산, 탄소중립 전환 요구로 철강산업이 큰 도전을 직면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친환경·고부가 철강산업으로의 전환 노력과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적시 대응을 강조했다. 특히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업계의 전향적인 투자 노력을 요청했다.

민동준 연세대 교수는 “철강산업이 오래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과거를 기억해야 한다”며, “탄소중립, 인공지능(AI), 신소재 등 새로운 ‘콘드라티예프 파동*’을 넘기 위해, 과거 연관산업과 함께 성장해왔듯이 미래 연관산업과 손잡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Kondratiev wave : 기술변화 등으로 일어나는 50~60년 주기의 중장기 경제 사이클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2025년은 철강산업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미래를 맞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TF에서의 논의를 종합하여, 실효성 있는 철강산업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산업공급망정책과 철강세라믹과	책임자	과 장	송영상(044-203-4690)
		담당자	팀 장	고승진(044-203-4691)
		담당자	사무관	김다은(044-203-469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 출범식 개요**

□ 개 요

○ **(일시/장소)** ‘25.1.9.(목) 14:00~15:30, 대한상의 EC룸

○ **(참석자)**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연세대 민동준 교수, 철강협회 및 산학연 전문가 등 17명

* (정부) 산업부 (학·연) 장웅성 박사, 서울과기대 이상준 교수, 고려대 이준호 교수, 산업연, 포스코경영연구원 등 (기업)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CM 등

○ **(주요내용)** TF 운영계획 및 분과별 주요 현안 발표

< 분과별 주요 미션 >

분 과	미 션
경쟁력 강화	철강 수요 분석/전망, 품목별 정책 지원 방안 등
그린 철강	수소환원제철 도입 지원, 그린철강 정의/인센티브, EU CBAM 대응 등
통상 현안	미 신정부 통상 현안 대응, 불공정 무역 대응 등

□ 세부 프로그램(안)

시 간		내 용	비고
14:00~14:07	(07′)	모두 말씀	공동위원장, 각 3분
14:07~14:12	(05′)	철강산업 TF 운영계획	
14:12~14:30	(18′)	**< 분과별 발제 >** ❶ (경쟁력) 철강산업 발전방안 ❷ (저탄소) 저탄소 철강 이행을 위한 핵심과제 ❸ (통 상) 철강 통상환경 변화와 과제	분과별 각 5분
14:30~15:25	(55′)	자유토론 및 건의	참석자 전원
15:25~15:30	(05′)	마무리 말씀	공동위원장, 각 2분